

28강 '문화' 통치가 스며들다





사이토 마코토
(3대 조선 총독)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라’는 대의를 존중하고 동양 평화와 민중의 복리 증진을 원칙으로 정한 바이다.

... 이 뜻에 따라 총독은 문,무 어느 쪽에서나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며, 복제를 개정해 교원의 제복과 대검을 폐지하고, 여장차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을 조선인의 행복, 이익을 증진을 도모하고 정치, 사회상의 대우에 있어서도 내지인(일본인)과 똑같은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며 이것이 달성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Saito Makoto, an elderly man with a mustache, wearing a dark suit and a white shirt with a dark tie. He is looking slightly to the right of the camera with a serious expression.

사이토 마코토
(3대 조선 총독)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라’는 대의를 존중하고 동양 평화와 민중의 복리 증진을 원칙으로 정한 바이다.

... 이 뜻에 따라 총독은 문,무 어느 쪽에서나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며, 복제를 개정해 교원의 제복과 대검을 폐지하고, 여장차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을 조선인의 행복, 이익을 증진을 도모하고 정치, 사회상의 대우에 있어서도 내지인(일본인)과 똑같은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며 이것이 달성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헌병경찰



즉결심판권



보통교육



조선 총독부



보통경찰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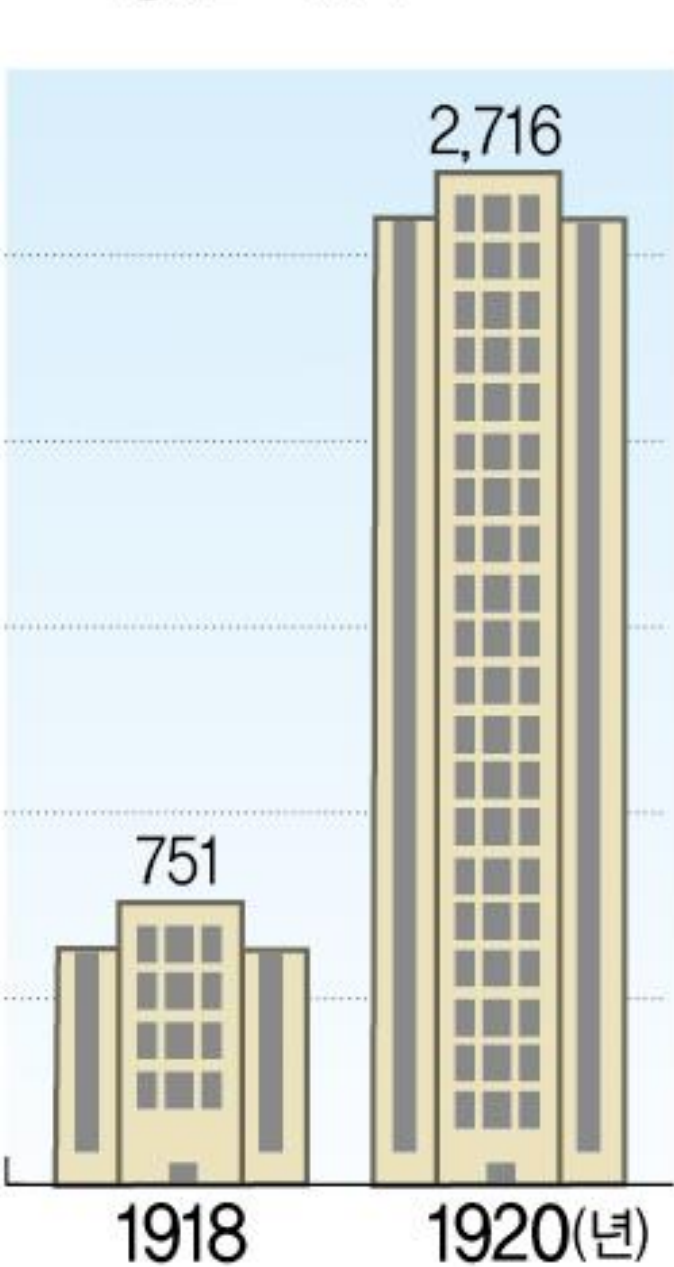
한국인
교육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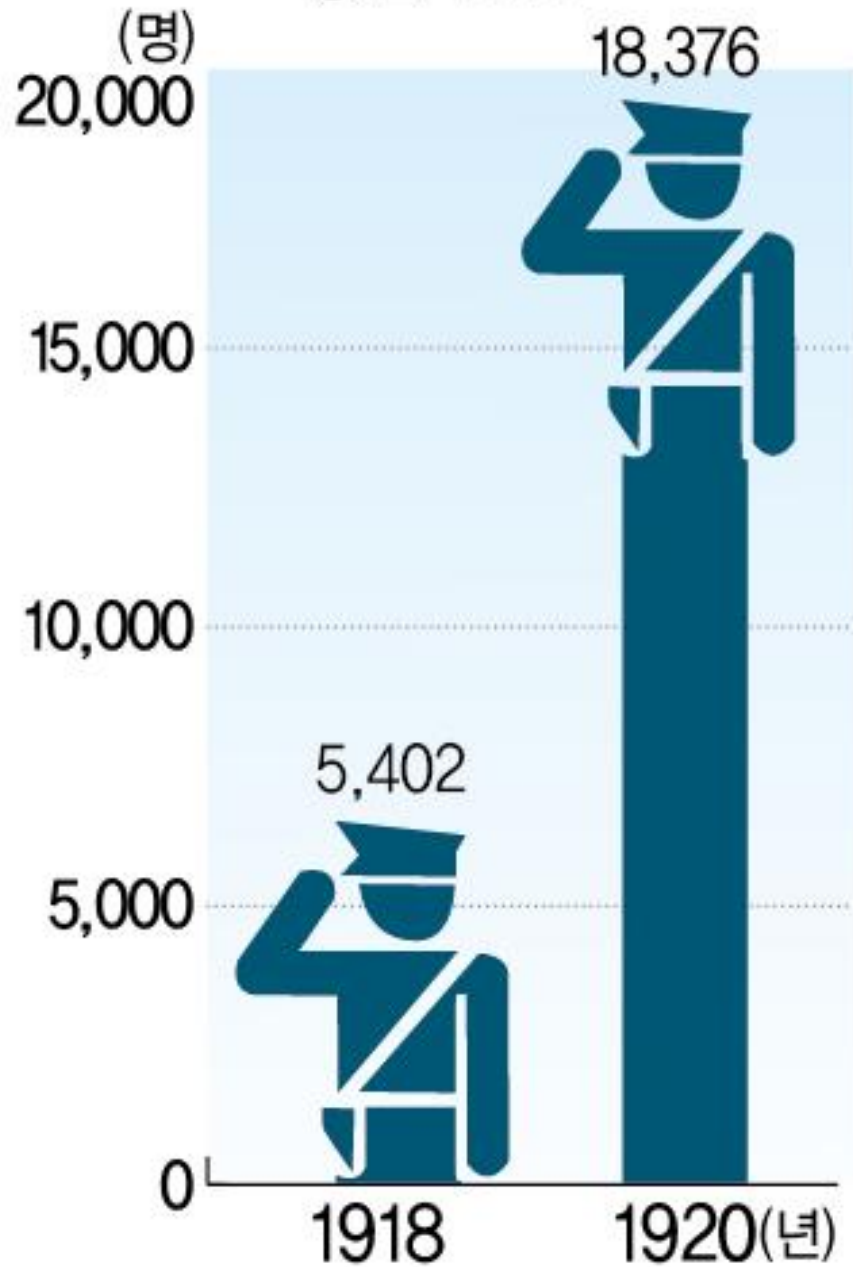
문관 총독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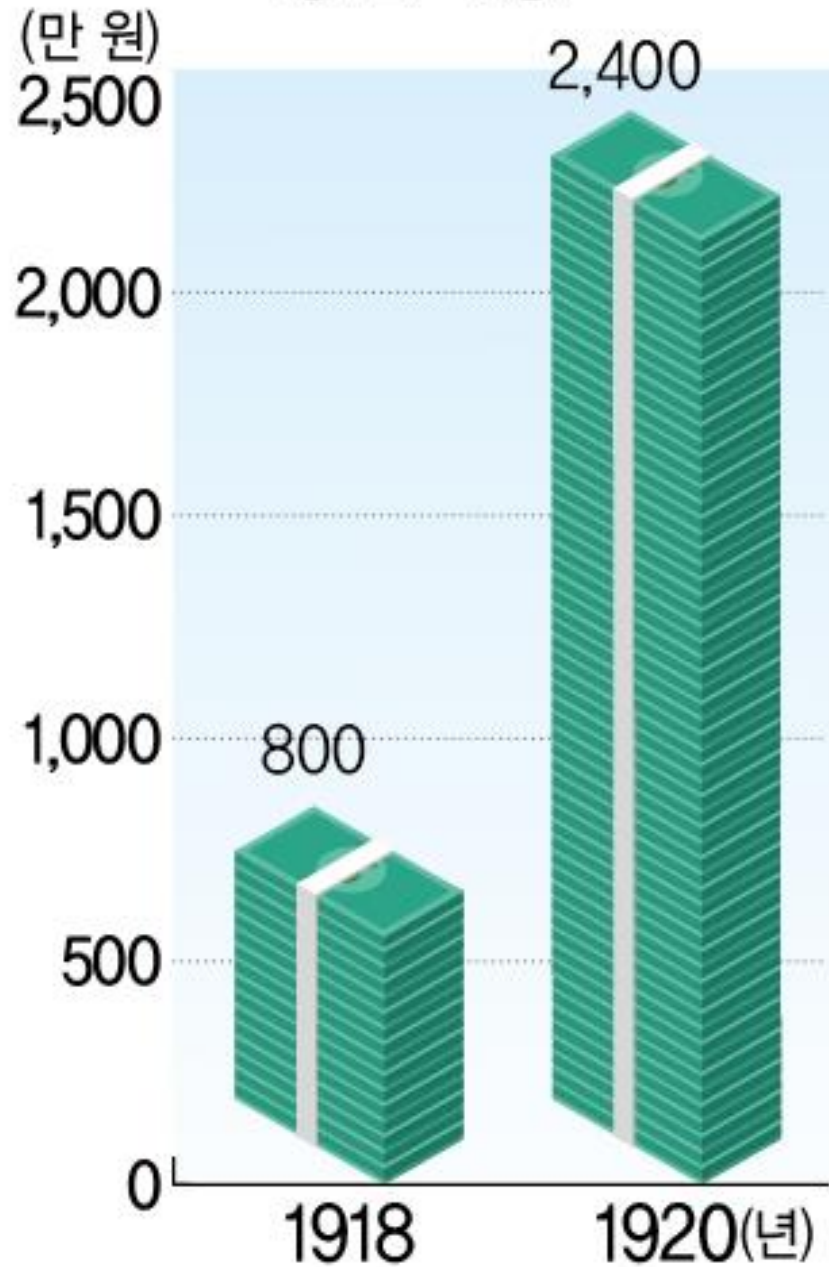
경찰 기관



경찰 인원



경찰 비용



付託

國名士

民衆會所

一、服務週期特
二、(金助會所)

民國三十一年一月一日
本會所自成立以來，承蒙各界人士之厚愛，業務日見發達。茲為擴大服務起見，特於本月一日，遷往新址辦公。凡我會員及各界人士，請於遷址後，繼續惠顧。此致
敬啟者
民國三十一年一月一日
民衆會所 啟



本會所自成立以來，承蒙各界人士之厚愛，業務日見發達。茲為擴大服務起見，特於本月一日，遷往新址辦公。凡我會員及各界人士，請於遷址後，繼續惠顧。此致
敬啟者
民國三十一年一月一日
民衆會所 啟

大同

本會所自成立以來，承蒙各界人士之厚愛，業務日見發達。茲為擴大服務起見，特於本月一日，遷往新址辦公。凡我會員及各界人士，請於遷址後，繼續惠顧。此致
敬啟者
民國三十一年一月一日
民衆會所 啟

leath personality.
In spite of many difficulties and vicissitudes, it has built up a wide circulation and maintained its financial strength.
In entering upon its second decade of service to the people of this peninsula, its well-wishers will hope that its path may be much smoother than in the first ten years, and that it will play an increasing part in leading the people along constructive lines of thought and action.
Perhaps there is no stronger force in the world to-day in moulding public opinion than journalism. The Dong-A Ilbo is fortunate in having a well-trained group of young men directing its editorial and business policy. That they may through this journal exercise an even greater influence on public opinion in the years to come is my earnest wish.

H. T. Owens

To Serve the People's
Highest purpose is
function of Newspaper
Prof. F. W. Fagleson
Australian Member
Central Council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May I wish your newspaper success in according to its consistent current information about world affairs? It is the function of the press not only to earn money for its proprietors or to give news, but to serve their highest purposes and guide them right along the lines of progress and advancement.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under which they labour, the intellectual activities of official communication is remarkable and I hope that influence of those interested in the East will be to encourage



同業者祝辭

【朝鮮日報社長申道南】
貴報自開辦以來，對於社會之貢獻，實非筆墨所能形容。茲值貴報遷址，特致祝辭，並願貴報繼續努力，為社會之進步，貢獻更多。此致
敬啟者
朝鮮日報社長 申道南 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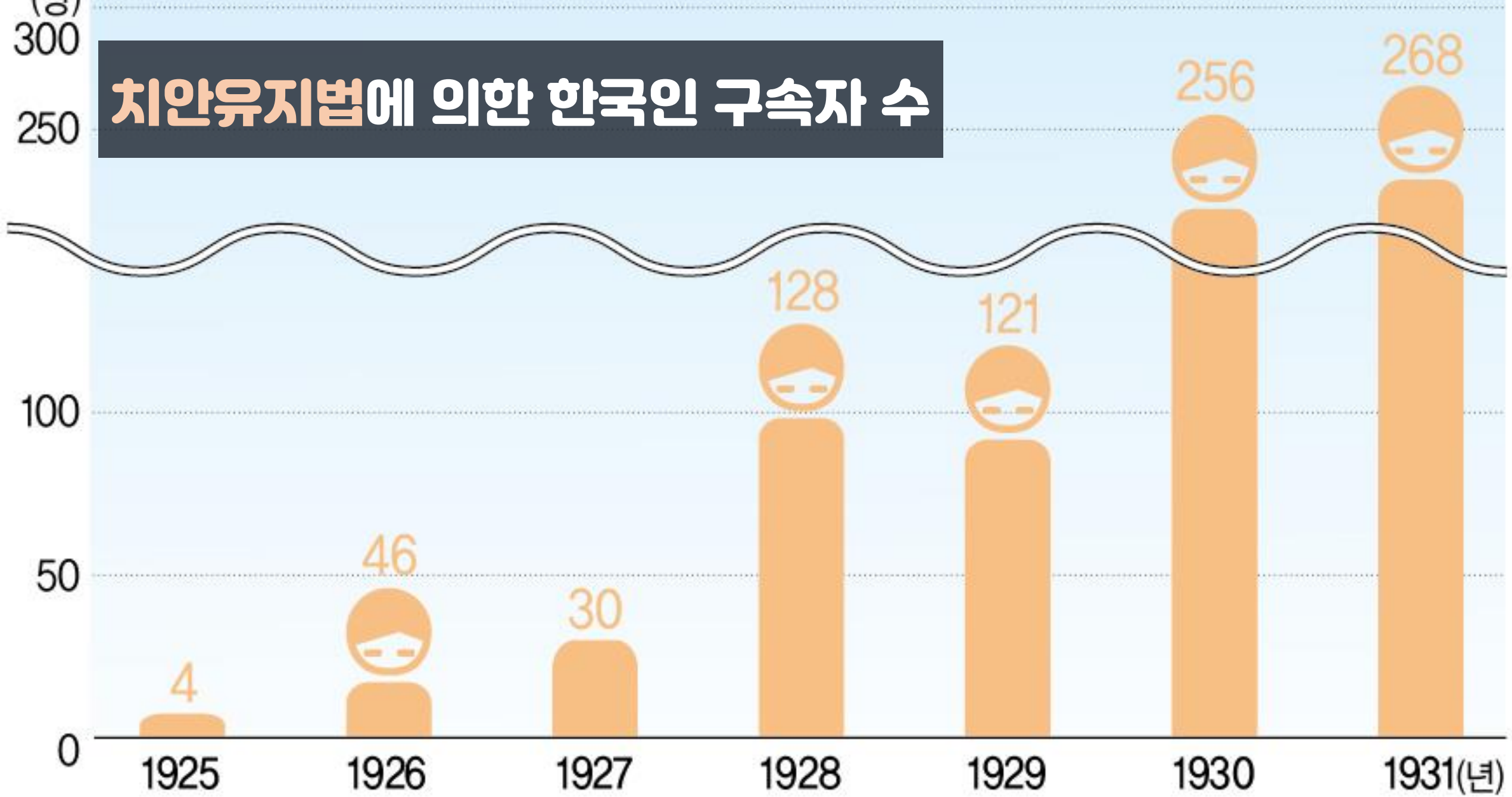
貴報自開辦以來，對於社會之貢獻，實非筆墨所能形容。茲值貴報遷址，特致祝辭，並願貴報繼續努力，為社會之進步，貢獻更多。此致
敬啟者
朝鮮日報社長 申道南 啟



to join in greetings
The Dong-A Ilbo
JAMES T. SHOTWELL
Director, Division of Economic
History,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Very glad indeed to have the
city of joining others from
in greetings to you and to the
Ilbo on the occasion of its
anniversary.
Very glad to learn from Dr.
of your delegation at the law

Hope the path smoother
in the Score record:
H. T. OWENS
Secretary and Treasurer
Composing Board for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It is a pleasure to offer a word of
congratulation to the pioneer Korean
newspaper of the present era on its
anniversary of publication and that your plans
for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the
Institute may now proceed unhampered.
I am particularly happy over

치안유지법에 의한 한국인 구속자 수



— 송규진, 『통계로 본 한국 근현대사』, 2004



사이토 마코토
(3대 조선총독)

조선 태형령 폐지
관리,교원 제복 폐지
도로 건설 강제 부역 개선
공립학교 한국인 교장 임명
한국인 판검사 심리 가능
도,부평의회 자문기관 설립
한국인 관리 월급 차별 완화



“우리는 조선 내에서 **허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1924.01.동아일보 <민족적 경륜>

춘원 이광수(1892-1950)

1920년대 일제 식민 통치

‘문화’통치 표방

민족 분열 정책 실시

배경

3·1운동 이후 국제 여론 악화, 무단 통치 한계 실감

전개 및 결과

- 문관 총독 임명 가능
- 보통 경찰제
- 언론·출판·집회·결사 자유 부분 허용
- 치안 유지법(1925): 일제의 국가 체제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 하는 이들 단속
→ 항일 민족운동 탄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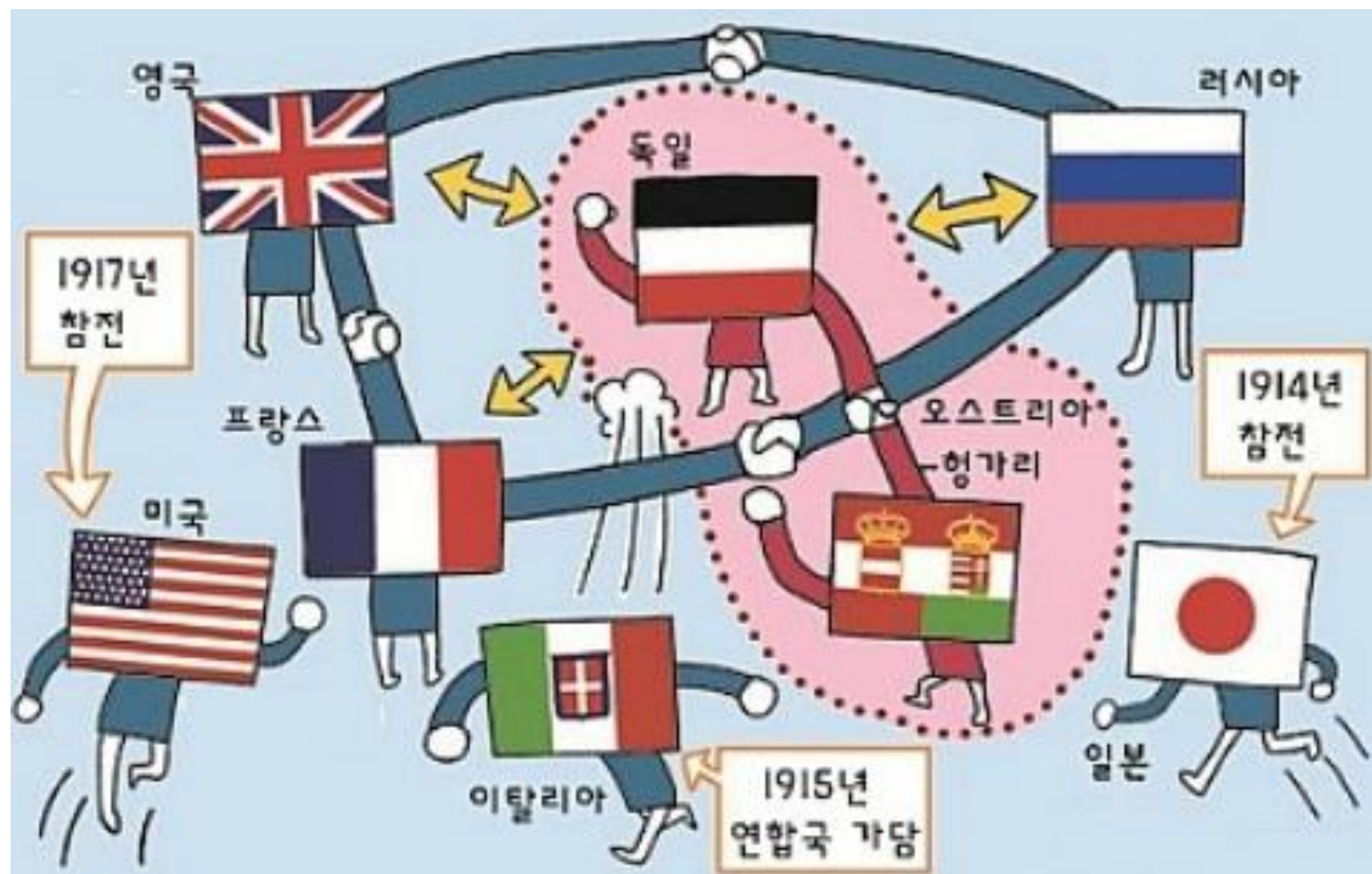
목적

제한된 자유를 허용하여 일제 협력자 양성

내용

지방 자치제 실시 - 부·면 협의회, 도 평의회 설치
교육 기회 확대 - 학교 수 증대, 보통학교 교육연한 연장
친일파 양성 - 민족 개조론, 자치론, 참정권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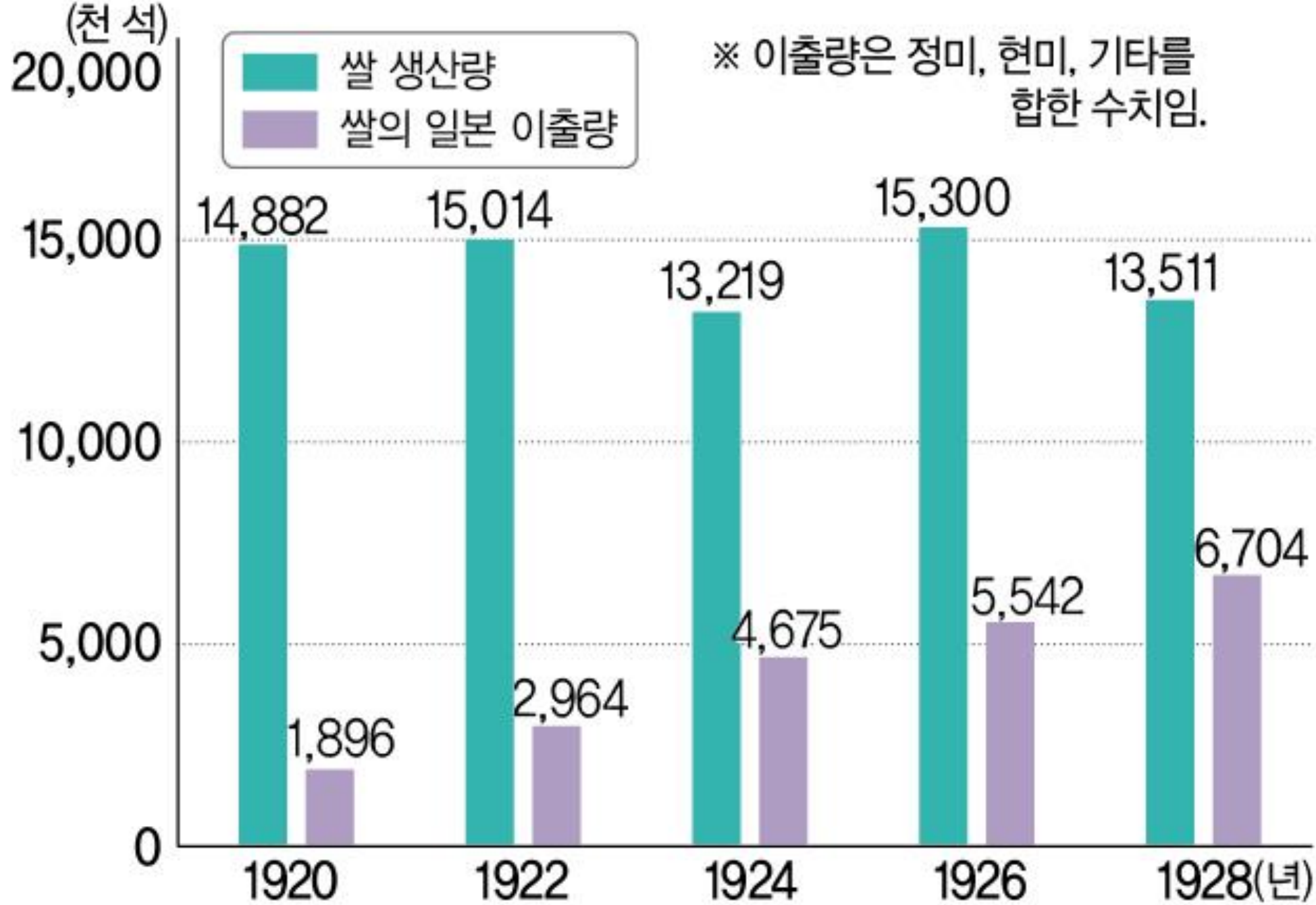
Chapter 2. 산미증식계획



산미증식계획

한반도에서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계획





— 조선 총독부, 「농업 통계표」, 1930 / 「조선 총독부 통계 연보」, 1920~1930



1920년대 일제 경제 수탈 정책

산미증식계획

회사령 폐지

그 외

배경

일본의 공업화로 쌀 부족

내용

한반도 내 쌀 증산을 위해
농토 개간, 비료 사용 확대,
수리조합 조직

결과

한국의 식량사정 악화
증산량<이출량

내용

회사설립을 신고제로 변경→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용이

관세 폐지(1920)
신은행령 발표
(1928)